

演慶堂 建築年代 研究

史料를 中心으로

손 신 영*

- I. 머리말
- II. 演慶堂 관련 자료 검토
- III. 演慶堂의 建築年代 推論
- IV. 맺음말

I. 머리말

演慶堂은 昌德宮 後苑에 있는 士大夫家로도¹, 흔히 '99칸 집' 이라고도 한다.¹ 그러나 실제 규모는 약 120여 칸에 달하는 큰 집으로 독특한 배치와 정교하고 화려한 창호 구성이 돋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소박한 분위기를 나타내어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궁궐에 존재하

* 東國大學校 講師.

¹ 연경당은 창덕궁 후원에 있는 주택 형식의 건물 중에서 사랑채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채에는 堂號가 없고, 사랑채에 붙여진 당호가 그 집의 당호로 인식되는 경향을 따라 본고에서도 특별한 주기가 없는 한, 연경당은 사랑채를 비롯한 집의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겠다.

한편 '99칸 집' 은 한국전통주택에 있어서 규모가 크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꼭 연경당만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연경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자주 쓰이는 편이다. 문화관광부, *Explore Korea*(2001), p.35.



도1 현존 연경당의 사랑마당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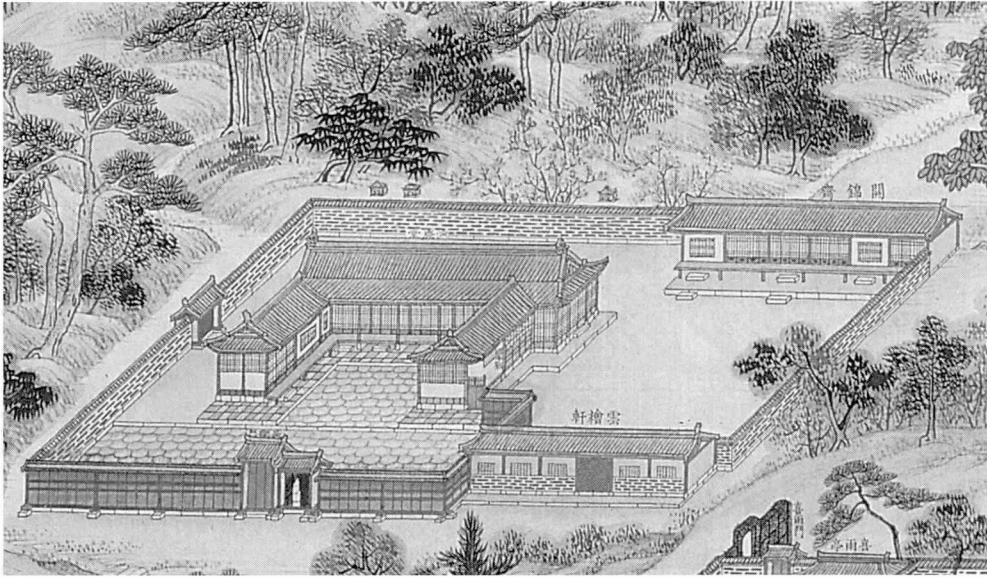
는 사대부가여서 그 조영 배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연경당의 조영 배경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² 즉 “純祖 28년(1828)에 당시 왕세자였던 孝明世子³가 사대부의 생활을 알고자 士大夫家를 모방하여 지었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견해이다.⁴ 그리고 “18세기 말 正祖 때부터 궁궐건축에 새바람이 일어 창덕궁 후원의 분위기가 일신되고 있었는데, 순조 때 대리청정을 하던 효명세자가 그 분위기를 계승하여, 당시 유행하던 주택풍의 건물을 그대로 답습

² 연경당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양도 적지만 연경당의 역사나 성격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전개에 대한 차분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과거에 이루어진 단편적인 설명들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시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³ 純祖의 첫째 아들로, 1827년부터 1830년 5월까지 代理聽政을 하다 갑자기 逝去한 후에 시호가 孝明이라 붙여졌다. 그의 아들인 憲宗은 즉위한 후 아버지인 효명세자를 왕으로 추존하여 묘호를 翼宗이라 하게 했으며, 효명세자의 양자로서 왕통을 계승한 高宗은 光武 3년(1899)에 익종을 익황제로 追尊하고 묘호를 문호로 고쳤다.

⁴ 연경당이 1828년에 사대부집을 모방하여 지어졌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논저들은 다음과 같다. 주남철, 『비원』(대원사, 1990), p.56; 『동궐도』(문화재관리국, 1991);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문예출판사, 1992), p.506; 윤장섭, 『한국건축사』(동명사, 1994), p.293; 장경희 외, 『한국미술문화의 이해』(예경, 1994), pp.421-422; 대한건축사협회, 『창덕궁』 한국전통건축 제2집(1994), p.170;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사』(기문당, 1997), pp.505-508;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청년사, 1999), pp.295-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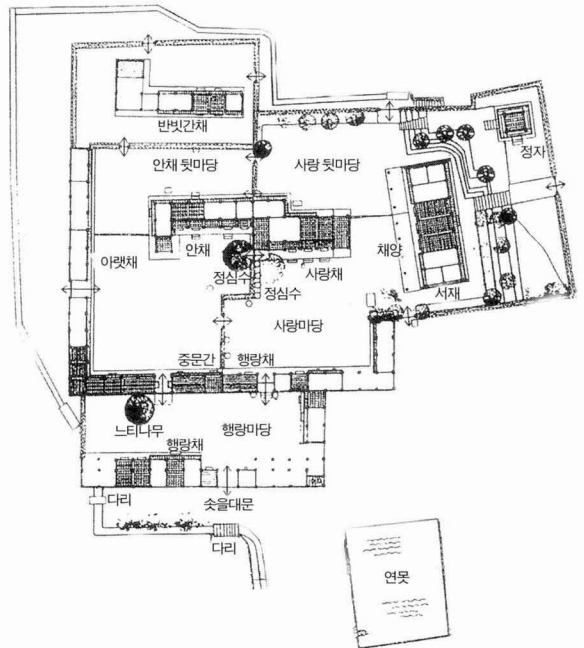


도 2 <東闕圖>의 연경당

하여 지었다.”는 견해도 있으며,⁵ 가장 최근에는 “효명세자가 궁궐 밖 민간생활을 알고자 1828년 당시의 궁집(宮家)의 모습을 궁궐에 재현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⁶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현존 연경당이 효명세자 代理聽政期인 1828년에 건축되었다는 것에異見을 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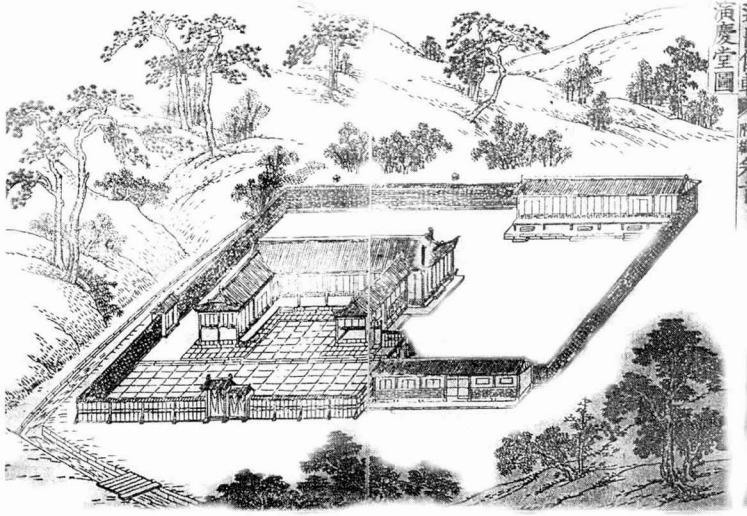
그러나 1830년 무렵의 창덕궁·창경궁과 후원이 채색화로 상세하게 그려진 <東闕圖>에서 연경당도2은 현존 연경당도3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 그림의 연경당 일곽은 1828

도 3 현존 연경당 배치도



⁵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기문당, 1997), pp.264-266.

⁶ 주남철, 『연경당』(일지사, 2003), pp.7-27.



도 4 <演慶堂圖>, 1828년(『[戊子]進爵儀軌』, 『進爵儀軌附編』)

년에 제작된 『進爵儀軌附編』의 圖說부분에 있는 <演慶堂圖>도⁴⁸와 일치한다.

이렇게 <동궐도>와 <연경당도>가 현존 연경당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연경당이 지어진 후 어느 날 궁중화원이 이미 소장하고 있던 <동궐도>에서 珍藏閣 명칭을 하얀 칠로 가리고 그 위에 '연경당'이라고 기록했다고 보기도 한다.⁹ 즉, <동궐도>가 그려질 당시에는 진장각이었는데 <동궐도>가 그려진 후에 그 건물이 연경당으로 고쳐지자 그림은 그대로 두고 글씨만 수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궐도>의 연경당은 진장각 모습이고, 그림 위에 쓰인 전각 이름만 연경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작의례부편』에는 進爵宴이 치러진 날짜와 시간·장소 등이 "1828년 6월 초하룻날 辰時 연경당"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동궐도>의 연경당은 1828

⁷ <東關圖>는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제249호의 화첩과 동아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제596호 병풍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이 중 고려대에 소장된 화첩 표지에는 "東關圖 人一", "東關圖 人十六"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御覽用 그림이 복제품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 3벌 정도가 제작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안휘준, 『옛 궁궐 그림』(대원사, 1997), pp.62-76. 이 두 본은 전체 구도 배치면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동아대 소장본이 원채화풍에 가까운 채색을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동아대 소장본을 天本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국보』 14, 증보판 하(예경출판사, 1993), "동궐도" 설명 부분.

⁸ 이하 <演慶堂圖>라 하겠다.

⁹ 주남철, 『연경당』(일지사, 2003), p.16.

년 당시 지어진 연경당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承政院日記』나 『日省錄』, 『備邊司謄錄』의 憲宗 12년(1846) 2월 기사에 '연경당이 新建된' 사실이 전해지므로 사대부가 모습인 현존 연경당이 1828년에 건축되었다는 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경당의 건축연혁이나 사대부가로 지어진 이유,¹⁰ 언제 어떤 일이 거기서 일어났는가와 같은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현재까지 연경당에 대한 설명은 건축적 외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경당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총망라하여 연경당의 건축역사를 정리하고 그 건축연대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경당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있어 그 일부임을 밝혀 둔다.

II. 演慶堂 관련 자료 검토

1. 繪畫資料

연경당이 그려진 자료는 현재 3종류가 전해지는데 <동궐도>도2·<연경당도>도4·<동궐도형>도6 등이 그것이다. 이 자료들에 표현된 연경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東闕圖>

이 그림에서 연경당은 제4첩 1면에 묘사되어 있다^{도2}. 붉은색 문의 향 우측으로 작은 문이 붙어 있고, 그 좌우로 붉은색 판장이 둘러쳐 있는 모습이다. 문 안쪽 마당에는 'ㄱ'자형 건물의 앞쪽으로부터 薄石이 깔려 있다. 이 그림 속의 연경당은 정면 8칸의 팔작지붕집이다. 양쪽 퇴칸의 정면에 수직으로 3칸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데, 향 우측 건물에 '祝華館'이라 쓰여 있다.¹¹ 연경당의 동북쪽에는 開錦齋가 정면 6칸의 맞배지붕집으로 묘사되어 있고

¹⁰ "순조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 자신은 사대부식 집인 연경당에 가끔 와서 소일했다."면서 연경당을 세도정치기의 나약한 왕권의 일면을 보여 주는 곳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전거를 밝히지 않았다.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청년사, 1999), pp.295-296.

그 남쪽으로 정면 6칸의 맞배지붕집인 雲檜軒이 있다. 연경당 전면의 붉은색 판장벽¹²은 이 운회현에 닿아 있다.

일반 주택에서 앞마당에 흙이 아닌 석재로 마당 전체를 깔아 놓은 예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또한 궁궐 내에서 박석을 깔아 놓은 곳은 正殿이나 便殿처럼 儀禮와 관련된 공간이므로 <동궐도>가 제작될 당시의 연경당은 의례가 행해질 수 있었던 건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 <演慶堂圖>

1828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진작연이 행해졌다. 2월에는 순조의 妃이자 효명세자의 生母인 純元王后의 四旬잔치를 慈慶殿에서 행하였고, 6월에는 순조의 생신축하연을 연경당에서 간소하게 행하였다.¹³

『[戊子]進爵儀軌』¹⁴ 전 2권 중 두 번째 권에 있는 「進爵儀軌附編」의 도설 부분에 <演慶堂圖> 도4, <演慶堂進爵班次圖> 도5, <演慶堂進饌圖>, <王世子小次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¹⁵ 이 중에서 연경당의 외관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은 <연경당도> 도4이다.

이 그림 속의 연경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몸체에 좌우로 정면 2칸, 측면 4칸의 건물이 연결된 'ㄱ' 자형의 평면 형태를 보인다. <연경당진작반차도> 도5와 '演慶堂內外排設' 에는 東溫突이 2칸 반, 廳東退가 3칸, 西溫突이 4칸 반, 廳東退가 2칸이라 되어 있다.¹⁶ 그러나 <연경당도>에서는 몸체의 향 우측이 정확히 간취되지 않아 동온돌이 축화관과 연결된 것인

11 『宮闕志』에도 “祝華觀連於演慶堂東”이라고 되어 있고, 「進爵儀軌附編」, “演慶堂內外排設”에는 “祝華觀一間”이라 되어 있어 규모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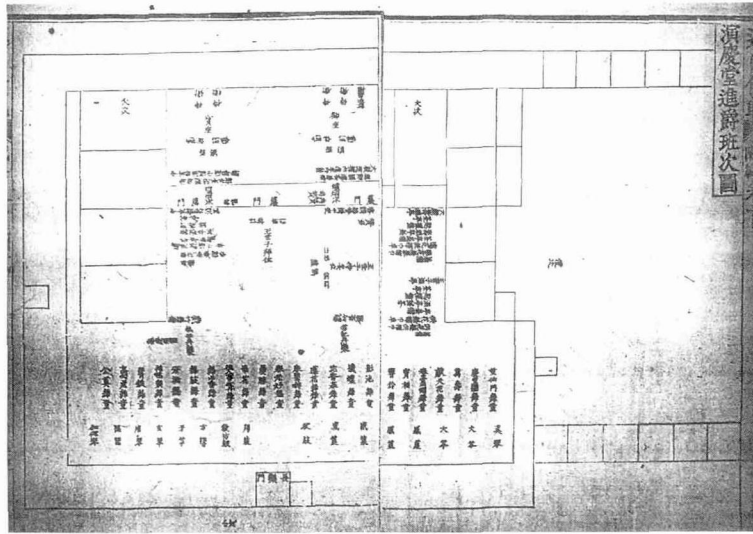
12 이는 시선 차단의 의도로 해석되는데, <東闕圖>에서 內殿인 통명전 앞의 월대에 판장벽으로 둘러쳐진 것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즉 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게 될 건물 내부자의 동선을 가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치했을 것 같다.

13 1828년의 진작연이 모두 순원왕후를 위한 행사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종수, 「1828년(순조 28) 純元王后 40세 경축연향과 <[戊子]進爵儀軌>」, 『규장각소장의궤해제집』1(서울대학교규장각, 2003), pp.57-63. 그러나 「진작의궤부편」의 命敎항목에 “命曰今年異於他年故正朝已爲稱慶而今當誕辰余小子祝岡之……”라고 되어 있어서 6월의 진작연은 6월 15일에 생신을 맞는 순조를 위한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14 奎 14363-1-2.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12책의 『진작의궤』가 전해지는데 각기 純祖·憲宗·高宗 연간에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1828년에 제작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 戊子라는 干支를 附記하였다. 이 의궤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도 2卷으로 구성된 한 질이 소장되어 있다.

15 이 도식들은 다른 의궤에서 볼 수 없는 세밀한 묘사와 다양함이 주목된다.

16 『[戊子]進爵儀軌』, 「進爵儀軌附編」, “演慶堂內外排設 正堂 東溫突 二間半…… 廳東退 三間…… 西溫突 四間半…… 廳東退 二間…….”



도 5 <演慶堂進爵班次圖>, 1828년(『(戊子)進爵儀軌』, 『進爵儀軌附編』)

지, 청과 연결되어 전면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축화관의 향 우측으로는 담이 연결되어 전면의 판장벽과 수직으로 만나고 그 오른쪽으로 정면 6칸의 건물이 있는데 문이 나 있어 행랑채로 여겨진다.¹⁷ 그림의 위쪽 향 우측에는 정면 6칸에 뒷마루가 달린 건물이 있다.¹⁸

이상의 내용은 <동궐도>상의 연경당과 일치하여 <동궐도>의 제작연대 추정에 있어서 상한을 1828년 6월 이후로 내려볼 수 있게 한다.¹⁹

17 <동궐도>에서의 雲檜軒이다.

18 <동궐도>에서의 開錦齋이다.

19 그리고 『宮闕志』와 <동궐도>의 비교를 통해 추정시기의 하한을 줄여 볼 수 있다. 즉 1830년 화재로 소실된 창경궁 迎春憲을 재건할 당시 ‘天地長男之宮’ (도15의 향 우측건물에 걸린 편액 중 오른쪽 첫 번째에 ‘天地長男宮’이라 되어 있다)이 헐려서 옮겨 지어졌다(『昌德宮志』, 『宮闕志』(1836), “……純祖三十年 庚寅燬癸巳以上命撤長男宮材移建……”)는 내용을 <東闕圖>에서 확인해 보면 長男宮과 같은 날 화재를 당한 창경궁의 歡慶殿, 景春殿, 養和堂, 涵仁亭 등이 모두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궐도>는 1828년의 여름 장마로 무너진 報漏閣의 모습과 重建되기 전의 通明殿 모습을 담고 있으며 1830년 화재 이전의 창경궁 건물들도 보이고 있다. 이로써 <東闕圖> 제작연대의 상한은 1828년 음력 6월 이후이며, 하한은 1830년 8월 1일 이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東關圖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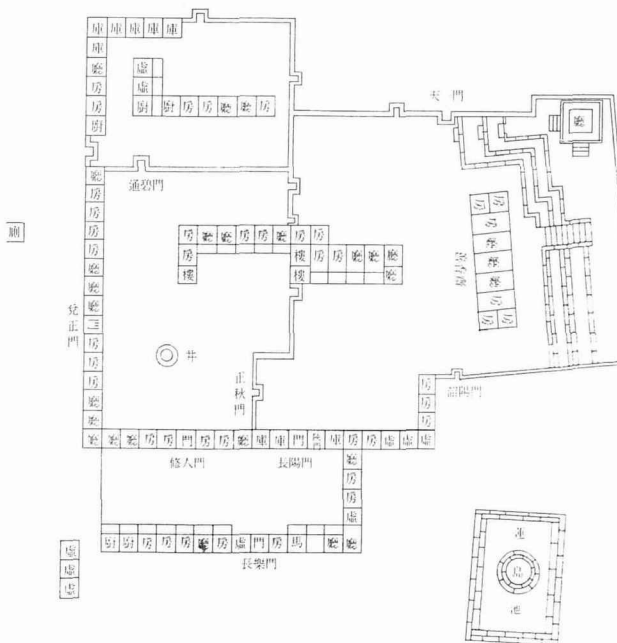
〈동궐도형〉도²⁰은 창덕궁·창경궁과 후원을 먹선으로 그려 놓은 배치도이다. 이 그림에서 연경당은墻과花階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어,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행랑채 공간이다. 외부로 통하는 장락문과 연결된 ‘L 자형’ 18칸의 외행랑채와 각기 안채와 사랑채로 들어갈 수 있는 修仁門과 長陽門이 나 있는 ‘L 자형’ 18칸의 내행랑채가 맞닿아 있는 공간이다.

두 번째 영역은 〈동궐도형〉의 향 좌측으로 안채공간이다. 서쪽으로 15칸, 남쪽으로 8칸인 행랑채가 ‘L 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r 자형’의 정면 6칸, 측면 2칸인 안채가 있고, 마당에는 안채와 사랑채를 가로고 서 있는 담에 남쪽으로 正秋門, 북쪽으로 佑申門이 나 있다. 서쪽 행랑채에는 兌正門이 나 있다.

세 번째 영역은 〈동궐도형〉의 향 우측으로 사랑채 공간이다. 안채와 연결된 사랑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인데 건물 뒤로 방 2칸이 안채와 연결되어 있다. 동쪽에는 정면 7칸, 측면 2칸인 善香齋, 남쪽에는 13칸인 행랑채가 ‘L 자형’으로 있다. 이 행랑채 동쪽으로 연결된 담에 韶陽門이 나 있다.

네 번째 영역은 안채의 북쪽에 위치한 ‘L 자형’의 건물이 이룬 공간이다. 이 건물의 서북쪽에 ‘r 자형’ 10칸인 행랑채가 별도의 건물로 세워져 있다. ‘L 자형’의 건물은 9칸인데



도 6 〈東關圖形〉의 연경당, 1900-1908년

²⁰ 奎 9980.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화첩을 연속으로 배접하여 전체 크기는 가로 3.5m, 세로 5.9m에 이른다. 화면 전체에 가로, 세로 11.4mm 정도의 방안선이 붉은색으로 가늘게 그려져 있고, 그 위에 건물의 칸마다 단선의 먹선으로 그린 후 건물 명칭과 공간의 용도가房·廚·虛 등으로 기입되어 있으며 우물과 담장, 석축 등도 표현되어 있다. 1900년에서 1908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廚라 쓰인 곳이 2칸이나 있어 부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부엌을 안방으로부터 독립시킨 ‘반빗간채’로 추정되고 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선향채 뒤쪽, 3단에 걸쳐 조성된 화계 위로 단칸의 청인 농수정이 있는 공간이다. 이 건물에는 출입구가 서쪽과 남쪽 두 곳에 마련되어 있다. 특히 서쪽 출입구 아래로는 북쪽에 太一門이 나 있는 담이 있다.

이러한 5영역의 구성은 대체로 현존 연경당도3의 공간구성과 거의 유사하다.

4) 회화 자료와 현존 연경당의 비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궐도>와 <연경당도>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데 이 두 자료는 <동궐도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면 현존 연경당 배치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연경당의 건축연대뿐만 아니라 건축연혁 추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① 현존 연경당과 <동궐도>·<연경당도>

현존 연경당의 배치도3는 ‘ㄱ자형’과 ‘—자형’이 결합된 ‘ㄱ—자형’이다. 이는 <동궐도>도2나 <演慶堂圖>도4의 ‘ㄱ자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즉 현존 연경당은 안채와 사랑채·별당과 정자·행랑채 등으로 구성된 사대부가인데 <동궐도>나 <연경당도>에서는 궁궐 내의 일반 전각 모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궐도>와 <연경당도>의 연경당이 지어진 후 어느 시기에 현존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현존 연경당과 <동궐도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궐도형>도6의 5영역은 현존 연경당도3의 공간구성과 동일하다. 다만 이 공간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세부적으로 室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외행랑채 비교²¹

〈東闕圖形〉		현존 연경당		비고
廚	2칸	히트간	2칸	변화 없음
房	2칸	마루	2칸	방에서 마루로 바뀜
房	1칸	방	1칸	변화 없음
廳	1칸	마루	1칸	상동
房	1칸	방	1칸	상동

虛	1칸	마루방	1칸	虛에서 문간마루방으로 바뀜
長樂門	1칸	대문	1칸	변화 없음
房	1칸	문간방	1칸	상동
馬	3칸	마굿간	3칸	상동
廳	1칸	측간	1칸	廳에서 厠으로 바뀜

위의 표를 통해 외행랑채는 외형상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으로 3곳의 室 구성이 바뀐 것을 살필 수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동궐도형>에서는 廳이던 곳이 화장실(厠)로 바뀐 것이다.²² 따라서 <동궐도형>이 제작된 이후 연경당은 용도에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室의 改造가 뒤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㉔. 중문간 행랑채(남행각) 비교

영역	〈東關圖形〉		현존 연경당		비고
안채	廳	2칸	마루	2칸	변화없음
	廳	2칸	방	2칸	상동
	修仁門	1칸	修仁門	1칸	상동
	廳	2칸	방	2칸	廳에서 房으로 바뀜
	廳	1칸	마루	1칸	변화없음
사랑채	庫	2칸	庫	2칸	상동
	長陽門	1칸	長陽門	1칸	상동
	夾門	1칸	방	1칸	夾門에서 방으로 바뀜
	庫	1칸	庫	1칸	변화없음
	房	2칸	방	2칸	상동
	虛	3칸	헛간	3칸	상동
	房	3칸	방	3칸	상동

중문간 행랑채 역시 외관상 큰 변화는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사랑채의 장양문 옆에 나 있던 헛문이 없어지고 방으로 바뀐 것이 주목된다.

21 서쪽부터 순서대로 살폈다.

22 현재도 재래식 화장실이지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㉔. 반딧간채

〈東闕圖形〉		현존 연경당		비고
庫	1.5칸	곳간	1.5칸	변화 없음
虛	1.5칸	부엌	3칸	부엌으로 추정되나 아궁이시설은 없음
廚	1.5칸			
廚	1칸	광	1칸	현재 광처럼 보이나 아궁이시설이 있어 부엌으로도 추정됨
房	2칸	마루방	5칸	방과 청 모두 마루로 바뀜
廳	2칸			
房	1칸			

방이 모두 마루로 바뀐 것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거주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한다.

㉕. 반딧간채 북쪽 행랑채

〈동궐도형〉에는 ‘ㄱ자형’으로 곳간과 방·부엌·문 등으로 구성된 행랑채가 반딧간채 영역에 있으나 현존하는 연경당에는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이 외에도 〈동궐도형〉의 안마당에 있던 우물이, 현재는 흔적도 없다.

이상을 통해 현존 연경당과 〈동궐도형〉의 배치는 거의 동일한데, 실내공간을 비롯한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 추이에 따른 연경당의 용도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문헌자료 고찰을 통해 좀더 자세히 추론해보겠다.

2. 文獻資料

연경당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들은 대부분 단편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간단한 기록조차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 연경당의 연혁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1. 柳本藝의 『漢京誌略』²³(1830)

연경당은 어수당의 서북쪽에 있으며, 순조 27년에 세자가 진장각 옛터에 세웠다

완게 존호 올리는 때를 맞이하여 이 집에서 의식을 거행하였기에 이름을 '연경' 이라 했다.²⁴

사료2. 『宮闕志』, 『昌德宮志』²⁵(1836)

연경당은 개금재의 서쪽에 있고, 남쪽이 장락문인데, 바로 진장각 옛터이다. 순조 28년 익종이 세자 시절에 개건하였고 현재 익종 영진을 봉안하고 있다.²⁶

사료3. 『宮闕誌』, 『昌慶宮誌』(1863-1907)

연경당은 14칸으로 서쪽에 내당이 있는데 10칸 반이고, 동남간 담에는 일각문인 통벽문이, 북쪽 담에는 일각문인 우신문이 있다. 동쪽에 있는 선향재는 14칸이고, 북쪽의 농수정은 1칸이다. 남쪽 담에는 일각문인 소양문이 있다. 북행각은 14칸 반이며, 서행각은 20칸이고 안에 태정문이 있다. 남행각은 21칸으로 동쪽에 장양문이 있고 서쪽에 수인문이 있다. 외행각 25칸에는 동쪽에 장락문이 있다.²⁷

사료4. 『東國輿地備考』²⁸(1863-1907)

연경당은 어수당 북쪽에 있으며, 순조 27년 익종이 세자시절에 진장각 옛터에 세웠는데 때마침 순조께 상존호를 올리는 경하스러운 예를 맞이하여 완성하였기에 이름

23 『한경지략』은 1830년 유본제가 쓴 것으로, 그는 당시 규장각 검서관이자 규장각 4검서관으로 유명했던 유득공의 아들이다.

24 『漢京識略』 卷之一, “演慶堂在魚水堂之西北當朝二十七年丁亥小朝朔建于珍藏閣舊基時直大朝上尊號禮成於此堂故命名曰演慶.”

25 『궁궐지』는 『宮闕志』와 『宮闕誌』의 2종류가 전해지고 있다. 『宮闕志』는 肅宗年間に 제작된 것을 純祖年間に 增補하여 憲宗 2년(1836)에 간행한 것으로, 1957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사료총서』 제3권으로 영인·발행한 것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에서 『서울학번역총서』 2로 1994년에 간행한 것 등 2종류가 있다. 이 책에는 각 건물의 연혁과 용도가 기록되어 있다. 『宮闕誌』는 고종 연간(1863-1907)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보존되고 있다. 이 책에는 각 건물들의 규모와 양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

26 「昌德宮志」, 『宮闕志』, “演慶堂在開錦齋西南曰長樂門即珍藏閣基也 純祖二十八年戊子翼宗春邸時改建今奉翼宗影眞.”

27 「昌慶宮誌」, 『宮闕誌』, “演慶堂十四間以西有內堂十間半以東南間牆一角門通碧門以北間牆一角門佑申門以東有善香齋十四間以北有濃繡亭一間以南間牆一角門詔陽門北行閣十四間半西行閣二十間內有允正門南行閣 二十一間內以東有長陽門以西有修仁門外行閣二十五間內有長樂門以東.”

28 조선시대의 국가 및 서울의 지리적·제도적·인문적 사항을 기록한 인문 지리서이다. 2권 2책의 筆寫本으로 전해지는 이 문헌은 高宗 연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1956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사료총서 제1권으로 발행하였다.

을 (연경이라) 지었다고 하였다.²⁹

사료5. 『[戊子]進爵儀軌』(1828년 1월 20일)

자경전에서 행하는 진작연을 위한 6번의 예행연습 중 첫 번째를 연경당에서 행하였다.³⁰

사료6. 『承政院日記』·『日省錄』 純祖 28년(1828) 3월 21일

연경당에서 효명세자가 신하들을 輪對³¹하였다.³²

사료7. 『[戊子]進爵儀軌』, 『進爵儀軌附編』(1828년 6월 1일)

大殿 中宮殿 進爵날을 6월 초하룻날 辰時 演慶堂에서 베풀어 행하기로 정하였다.³³

사료8. 『純祖實錄』 純祖 30년(1830) 7월 庚午 條

“지난 일은 뉘우칠 것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남을 신임하기를 자신처럼 여겼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그 사사로움을 위하고 진실되게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 또 내시들에게 집을 지은 것을 가리키면서 한탄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세위 무엇하는가. 내 마음이 오늘과 같았다면 전날에 반드시 세우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³⁴

사료9. 『內閣日曆』³⁵ 憲宗 1년(1835) 윤 6월 4일

규장각과 연경당 봉심날에 이르러 날씨가 흐리고 습하나 부득이 거행하려는 뜻을 아뢰기를 청한다.³⁶

29 『東國輿地備考』 昌慶宮條, “演慶堂在魚水堂西北 純祖二十七年 翼宗在春宮時 建于珍藏閣舊基時值大朝上尊號慶禮而適成故名之.” (영인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檀紀 4289).

30 『[戊子]進爵儀軌』 卷首(奎14364-1), “正月二十日 初度習儀演慶堂設行.”

31 백관이 차례로 시정의 득실을 임금에게 아뢰는 일.

32 『承政院日記』 222冊 純祖 28년 3월 21일, “王世子座 演慶堂輪對”; 『翼宗代聽時目錄』, 『日省錄』 85冊 純祖 28년 3월 21일條, “召見輪對官于演慶堂.”

33 『進爵儀軌附編』, 『[戊子]進爵儀軌』 卷之二(奎14364-2), “擇日 大殿中宮殿進爵正日六月初一日辰時演慶堂設行.”

34 『純祖實錄』 卷31 純祖 30년 7월 庚午條, “…… 又對侍宦指所勑屋而歎曰 建此欲何爲使余心如今日昔必不建矣 即此可知其賢明.”

35 正祖 3년(1779)-高宗 20년(1883)까지 105년 동안 奎章閣에서 매일 매일의 政事를 편년체로 쓴 것이다. 규장각의 소관업무나 문화사업에 관련된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 『承政院日記』보다 내용이 자세하다.

사료10. 『內閣日曆』 憲宗 1년(1835) 윤 6월 9일

본각에서 아뢰기를 내일은 규장각과 연경당 봉심일을 맞이하여 신들이 나아가 참배하고 거행하려 하오니.³⁷

사료11. 『憲宗實錄』·『內閣日曆』·『日省錄』 憲宗 3년(1837) 4월 17일

왕이 월근문·요금문에 나가 순조와 효명세자의 御眞을 宙合樓, 演慶堂으로부터 경모궁 망묘루, 경우궁 성일현으로 옮겨 봉안할 때 친히 祇送을 행하였다.³⁸

사료12. 『備邊司謄錄』 憲宗 12년(1846) 2월 17일, 『承政院日記』·『日省錄』 憲宗 12년 2월 18일

이번 연경당 신건 공사에 거의 만량이 들었는데 간신히 삼천 냥만 내려주었다.³⁹

사료13. 『內閣日曆』·『承政院日記』·『日省錄』·『國朝寶鑑』 哲宗 8(1857)년 2월 6일

謀訓을 대유제에 옮겨 모시기를 명하였다. 연경당의 땅이 쓸쓸하고 축축하므로 마침내 대유제로 옮겨 봉안하기로 정한 분부를 거행하라고 명하였다.⁴⁰

36 『內閣日曆』 663冊 憲宗 1년 윤 6월 4일, “奎章閣演慶堂奉審日次而日氣陰濕不得舉行之意請司謁入稟.” 이러한 내용은 同年 同月 5일·10일·15일·20일·25일·28일·29일, 7월 5일·10일·29일, 9월 15일, 11월 15일, 12월 1일·15일, 헌종 2년 2월 14일, 3월 1일, 4월 15일, 5월 1일·15일, 6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15일, 12월 29일, 헌종 3년 2월 15일조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37 『內閣日曆』 663冊 憲宗 1년 윤 6월 9일, “本閣啓曰明日即奎章閣演慶堂奉審日次臣等進詣舉行之意取.” 이러한 내용은 同年 同月 14일·19일·24일, 7월 4일·9일·19일·24일·28일, 8월 4일·10일·30일, 9월 14일, 10월 14일·30일, 11월 14일·29일, 12월 14일·30일, 헌종 2년 1월 29일, 2월 20일, 6월 14일, 7월 14일·30일, 8월 14일·29일, 9월 14일·30일, 10월 29일, 11월 14일·30일, 12월 14일, 헌종 3년 1월 14일·30일, 2월 1일·14일·15일·29일, 3월 14일·30일, 4월 14일조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38 『憲宗實錄』 卷4 憲宗 3년 4월 17일, “上詰月觀門曜金門純宗大王翼宗大王御眞自宙合樓演慶堂移奉于景慕宮望廟樓景祐宮誠一軒時親行祇送”; 『日省錄』 44冊 憲宗 3년 4월 17일, “純宗大王翼宗大王御眞自宙合樓演慶堂移安于景慕宮望廟樓景祐宮誠一軒時親行祇送.”

39 『備邊司謄錄』 223冊 憲宗 12년 2월 17일, “而今番演慶堂新建所入合爲萬兩上下僅爲三千餘兩”; 『承政院日記』 2447冊 憲宗 12년 2월 18일, “而今番演慶堂新建所入合爲萬兩上下僅爲三千餘兩”; 『日省錄』 154冊 憲宗 12년 2월 18일, “而今番演慶堂新建所入合爲萬金上下僅爲三千餘兩.”

40 『承政院日記』 2588冊 哲宗 8년 2월 6일, “傳曰 演慶堂基地秋濕奉安謨訓終涉未安以大西齋移定事分付度支”; 『日省錄』 120冊 哲宗 8년 2월 6일, “命 奉安 謨訓以大西齋移定 教曰演慶堂基地秋濕奉安 謨訓終涉未安以大西齋移定事分付度支”; 『國朝寶鑑』 89卷, 哲宗 8년 2월條, “二月移奉謨訓于大西齋謨訓舊奉于演慶堂至是以基地秋濕命移奉.”

- 사료14. 『承政院日記』·『日省錄』 高宗 2년(1865) 4월 2일
연경당과 의두합 수리공사 때 감독한 대장과 그 이하 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포상하였다.⁴¹
- 사료15. 『日省錄』 高宗 20년(1883) 6월 24일
연경당에서 동래부사 조동필을 접견하였다.⁴²
- 사료16. 『日省錄』 高宗 21년(1884) 2월 10일
연경당에서 일제과차시험을 행하였다.⁴³
- 사료17. 『高宗實錄』 高宗 21년(1884) 10월 19일
유시에 임금이 후원에 있는 연경당에 피접해 갔다가 각전, 궁들과 서로 연계를 잃고 다시 옥류천 뒤 북쪽 담문에 이르렀다.⁴⁴
- 사료18. 『日省錄』 高宗 30년(1893) 2월 29일
영녕전 전배 후 제실에 들어가 익신관 곤룡포를 고쳐 갖추고 가마에 올라 북담문을 나와 연경당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⁴⁵
- 사료19. 『高宗實錄』 高宗 36년(1899) 12월 6일
음력 작년 9·10월에 연회 차 동쪽 대궐의 연경당을 대충 도배한다는 말을 피고는 탁지부대신으로 다시 임명되었을 때 들었습니다.⁴⁶
- 사료20. 『日省錄』 純宗 2년(1909) 4월 21일
연경당에서 이토오 히로부미를 접견하였다.⁴⁷

41 『日省錄』 23冊 高宗 4월 20일, “命 演慶堂倚斗閣修理時監董大將以下別單書入口敎也 演慶堂倚斗閣修理時監 董訓練大將以下施賞有差”; 『承政院日記』 高宗 2년 4월 20일, “下敎曰 演慶堂倚斗閣修理時監董訓練大將以下 別單書入.”

42 『日省錄』 268冊 高宗 20년 6월 24일, “召見東萊府使趙東弼于演慶堂.”

43 『日省錄』 276冊 高宗 21년 2월 10일, “行人日製科次于演慶堂.”

44 『高宗實錄』 卷21 高宗 21년 2월 10일, “酉刻 上避于後苑演慶堂與各殿宮相失轉避至玉流泉後北墻門.”

45 『日省錄』 387冊 高宗 30년 2월 29일, “永寧殿展拜還入齋室改具翼善冠袞袍乘輿出北墻門至演慶堂降輿還內.”
이러한 내용은 『日省錄』의 高宗 29년 12월 6일, 30년 4월 1일, 5월 27일, 8월 8일조 등에서도 살필 수 있다.

46 『高宗實錄』 卷39 高宗 36년 12월 6일, “陰曆昨年九十月間宴饗次東闕演慶堂略略塗楮之說被告度支大臣再任時間之云.”

사료21. 『純宗實錄附錄』 純宗 5년(1912) 4월 16일

연경당에 왕비와 함께 왕립하여 후작 윤택영과 부인 유씨에게 오찬을 베풀었다.⁴⁸

사료22. 『純宗實錄附錄』 純宗 10년(1917) 11월 10일

대조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밤에 잠시 연경당에 피신하였다가 진화 후 인정전 동행각으로 옮겼다가 성정각을 침소로 정하였다.⁴⁹

사료23. 李哲源의 『王宮史』(1954)

연경당은 어수당 북쪽(제일연지 북쪽) 즉 진장각 옛터에 있다. 순조 28년 익종이 세사시절에 건축하였는데 民家를 모방하여 세웠기에 단청을 하지 않았다. 고종 21년 갑유에 왕이 이곳으로 피난하였는데 김옥균, 박영효 등이 따랐다. 고종 32년 6월 명성황후가 내외 귀빈 수천 명을 이곳으로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기도 했다. 동쪽의 선향재는 책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 건물의 뒤쪽에는 돌난간을 두른 농수정이 있다.⁵⁰

사료1을 기록한 유득공은 창덕궁 후원에 있던 규장각에서 검서관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궁궐의 전반적인 상황뿐 아니라, 연경당 일대의 상황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기록은 궁궐에 출입하면서 실제로 본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에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이 쓰인 시기는 <동궐도>가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무렵이자 연경당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이므로, 본고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된다. 그러나 연경당의 건축연대를 1827년이라 기록하고 있어 다른 기록과 1년의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건축공사에 있어서 착공과 완공에는 시차가 있으므로, 어느 시점을 건축시기로 잡느냐에 따르는 오차가 아닐까 한다.

47 『日省錄』 5冊 純宗 2년 4월 21일, “接見 太子太使伊藤博文于演慶堂陪食。” 연경당에서 황제가 외국인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경우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 더 있었다. 즉 『日省錄』 5冊 純宗 2년 4월 29일, 純宗 2년 5월 26일 조 등에도 그러한 행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48 『純宗實錄附錄』 卷2 純宗 4년 4월 17일, “臨于演慶堂王妃同臨設午餐侯爵尹澤榮同夫人俞氏秘陪食”; 『純宗實錄附錄』 卷3 純宗 5년 4월 16일 조에도 왕 내외가 연경당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있다.

49 『純宗實錄附錄』 卷8 純宗 10년 11월 10일, “大造殿火午後五時火自大造殿西溫突接連之內人更衣室而起內殿全部燒燼…… 午後八時始鎮火是夜兩殿下暫避于演慶堂鎮火後移臨于仁政殿東行閣假寢所定以誠正閣內殿所.”

50 “演慶堂 在魚水堂北(第一蓮池北) 卽珍藏閣舊基 純祖二十八年翼宗春邸時建 做民家而建 不施丹青 高宗二十一年甲申 上避難于此 金玉均朴泳孝等從焉 高宗三十二年六月 明成皇后 宴內外賓客數千人于此(追加) 東有善香齋 藏書之處 齋後有 濃繡亭繞以石欄干.” 이철원, 『王宮史』(구황실제산총국, 檀紀4287(1954)), p.54.

사료2는 효명세자가 익종으로 추존된 후의 기록으로 연경당이 익종의 초상화를 봉안하는 장소였음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이 기록 당시의 연경당은 神聖시되는 건물로 보이는데 그 모습은 현재와 같은 사대부가는 아니었을 것이다.

사료3은 <동궐도형>의 연경당을 글로 묘사한 것이라 할 정도로 두 기록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며, 현존 연경당과도 거의 일치한다. 다만 현존 연경당의 복행각 칸수가 줄어든 점이 다르다.

사료4는 사료3과 마찬가지로 연경당이 창덕궁조가 아닌 창경궁조에 속해 있고, 사료1처럼 연경당의 건축연대를 1827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 점은 『동국여지비고』가 고종 연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보다 앞서 편찬된 『한경지략』과 『宮關誌』를 참조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료5·사료6·사료7은 1828년 당시 연경당의 용도를 짐작하게 한다. 효명세자 대리청정시절에 세자의 政堂으로 활용되었던 곳은 창덕궁 중희당이었으나 이 사료들로 인해 연경당도 세자와 관련된 곳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료5처럼 효명세자가 어머니 생신 진작연의 첫 번째 예행연습을 행한 곳이 연경당이라는 것은 세자의 처소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료6에서처럼 신하들과 만나서 市政을 논할 수 있었고, 사료7의 진작연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료8은 효명세자가 生前에 內侍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던 외할아버지 김조순이 세자의 墓地銘에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효명세자가 의욕적인 개혁정치를 단행하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혔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울적한 마음에서 새롭게 단장된 건축물을 보면서 후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새롭게 단장된 건축물은 효명세자의 개혁정치의 소산이었음을 짐작케 된다. 단 그 건물이 연경당인지 혹은 다른 건물인지 알 수 없지만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시절 후원 일대가 쇠신되는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 사료상의 건축물은 연경당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료9·사료10·사료11은 모두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종 3년까지는 연경당이 익종의 어진을 봉안하던 전각임을 알려 준다. 또 사료9와 사료10은 연경당에 왕의 어진이나 어필이 보관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의식이 행해졌던 것을 알려 준다. 이로써 연경당의 용도가 앞 시기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료12는 1846년 초에 연경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밝혀 주는 매우 중요한 기사이다. 이 기사의 뒷부분에는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과는 다르다.”⁵¹고 밝히고 있어서, 당시 공사는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건축공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짓는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이때 현존 연경당과 같은 사대부가로 건축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공사비로 만 냥이 들었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고찰해 보겠다.

사료13은 철종 연간의 연경당 용도를 알려준다. 현종 3년(1837)에 익종의 어진이 옮겨진 후에도 연경당에 謀訓⁵²이 봉안되어 왔다는 것은 궁궐 내에서 연경당이 차지하는 건축적 위계가 높았으며 그 위계가 철종 연간까지 계속 유지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쓸쓸하고 축축하기 때문에 모훈을 옮긴다는 것은 연경당에 인적이 드물고, 습기가 많아 서화류를 봉안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료9·사료12와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건축된 지 약 20여 년 만에 새롭게 지어졌어도 입지조건이 불리함은 극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³

사료14는 고종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연경당과 의두합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연경당과 의두합은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당시 건축되어, 자주 이용했던 건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공사는 고종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한다. 고종은 효명세자의 대통을 이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효명세자를 추념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을 것이므로 효명세자와 관련된 건물에도 자주 출입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료18의 내용처럼 종묘제례 전후로 연경당에 행차하여 왕통의 정당성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료15·사료16도 동일한 사안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사료17과 사료22는 위기 상황에서 연경당이 피난처로 쓰였음을 알려 준다. 이 상황에서 왕은 혼자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왕비를 비롯한 권속들이 함께 움직였을 것이므로, 연경당이 <동궐도>나 <연경당도>에서와 같이 규모가 작은 전각이었다면 피난처로서의 역할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다. 따라서 연경당은 이미 갑신정변 무렵에는 현존 모습처럼 사대부가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19는 연경당에서 행하는 연회 때문에 1898년 가을에 도배하였음을 알려 주는 기사

51 『備邊司謄錄』 223冊 憲宗 12년 2월 17일; 『承政院日記』 2447冊 憲宗 12년 2월 18일; 『日省錄』 154冊 憲宗 12년 2월 18일, “修補異於新建.”

52 나라의 大計 또는 후대의 왕이 본받아야 할 典範과 教訓.

53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창덕궁 관계자들이 연경당의 위치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창덕궁의 실제지형은 남북간이 긴데, <동궐도>는 동서간이 긴 지형으로 왜곡되어 있어 연경당이 현재 위치에서 향 좌측으로 밀려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경당의 위치가 시대에 따라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고, 창경궁에 있던 延慶堂을 현존 演慶堂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건물은 별개의 건물이라는 것을 밝혀 둔다.

이다. 연경당으로 왕의 행차가 잦아지고 신하나 외국사신들과의 만찬이 늘자, 이러한 용도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던 것 같다. 이는 사료15·사료20·사료21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사료23은 현존 연경당이 “1828년 사대부가를 모방하여 건축되었다고 하는 설⁵⁴의 직접적인 典據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필자는 序文에서 『宮闕志』를 추가·정정·발췌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추가·정정하면서 정확한 서술이 아닌 점을 직접 밝혀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을 전적으로 참고한다면 스스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된다고 하겠다.⁵⁵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경당은 1828년에, 진장각 자리에 지어져 효명세자의 政堂으로 활용되다가 헌종 3년까지는 익종의 초상화와 글씨를 보관하는 곳으로 활용되었고 초상화와 글씨가 옮겨진 후, 1846년에 새롭게 지어지고 철종 8년까지는 모후를 봉안하던 곳이었다. 고종 즉위 후에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으며, 1884년의 갑신정변 당시와 1917년의 창덕궁 화재 당시에는 피난처로 활용되었고, 1892년과 1893년에는 종묘나 문묘의 제례 후 왕이 행차하던 곳이었다. 또 고종·순종 연간에는 신하와 사신을 접견하는 곳으로도 이용되었다.

따라서 연경당은 역사적 추이에 따라 그 용도가 바뀌어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건물 형태도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演慶堂의 沿革

年代	內容	典據	用途
純祖 28年(1828)	珍藏閣 옛터에 세웠을 때 마침 순조께 尊號 올리는 행사를 하면서 演慶 이라 이름 지음	『漢京識略』 『宮闕志』 『東國輿地備考』	孝明世子의 處所(政堂)
純祖 28年(1828) 1月 20日	純元王后 四旬축하 進爵宴의 첫 번째 예행연습을 演慶堂에서 행함	『[戊子]進爵儀軌』 卷首	
純祖 28年(1828) 3月 21日	演慶堂에서 孝明世子(翼宗)가 신하들을 輪對	『承政院日記』 『日省錄』	
純祖 28年(1828) 6月 1日	演慶堂에서 純祖의 39세 생신 進爵宴 치름	『[戊子]進爵儀軌』 卷之二「進爵儀軌附編」	

⁵⁴ 주3 참조.

⁵⁵ 이에 대해서 주남철 교수 역시 문제를 제기하였다. 주남철, 『연경당』(일지사, 2003), pp.17-18.

憲宗 1年(1835) 閏 6月 4日- 憲宗 3年(1837) 4月 15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演慶堂에 봉안되어 있는 翼宗의 御眞과 御筆을 살펴보는 의식 거행	『內閣日曆』 『承政院日記』 『日省錄』	翼宗의 御眞과 御筆 奉安處
憲宗 3年(1837) 4月 16日	演慶堂에 奉安되어 있던 어필은 奉慕堂으로 移奉하고 圖書 및 印譜는 宙舍樓로 옮겼으며, 나머지 도구는 書香閣에 移置	『內閣日曆』 『承政院日記』 『日省錄』	
憲宗 3年(1837) 4月 17日	演慶堂에 있던 翼宗의 御眞을 景祐宮 誠一軒으로 옮길 때 왕도 함께 祗送	『內閣日曆』 『憲宗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憲宗 12年(1846) 2月 18日	이년 演慶堂 新建 工事に 거의 萬兩이 들었는데 간신히 三千兩만 내려줌	『承政院日記』 『日省錄』	不明
哲宗 8年(1857) 2月 6日	謀訓이 모셔진 演慶堂의 땅이 축축하므로 봉안처를 대유제로 변경	『國朝寶鑑』 『內閣日曆』 『承政院日記』 『日省錄』	謀訓 봉안처
高宗 2年(1865) 4月 20日	演慶堂과 倚斗閣 修理公事に 참여한 사람들에게 施賞할 것을 命함	『承政院日記』 『日省錄』	不明
高宗 20年(1883) 6月 24日	演慶堂에서 東萊府使 조동필을 접견	『高宗實錄』 『日省錄』	왕의 休息處이자 接見場所, 避難處
高宗 21年(1884) 2月 10日	演慶堂에 나아가 과거시험 채점	『日省錄』	
高宗 21年(1884) 10月 19日	甲申政變 당시 演慶堂까지 避接했다가 北廟로 나감	『高宗實錄』 『梅天野錄』	
高宗 29年(1892) 12月 6日 高宗 30年(1893) 2月 29日 4月 1日/5月 27日	宗廟 展拜 후 演慶堂으로 돌아감	『日省錄』	高宗의 王統象徴處
高宗 30年(1893) 8月 8日	文廟 拜禮 후 演慶堂으로 돌아감	『日省錄』	
高宗 31年(1894) 5月 10日	皇壇 奉審 후 演慶堂에서 미국공사 접견	『高宗實錄』 『日省錄』	外國使臣과 만나는 公式 接見處
高宗 35年(1898) 9月 10日	演慶堂 도배	『高宗實錄』	
純宗 2年(1909) 4月 21日	演慶堂에서 伊藤博文을 접견하고 식사	『日省錄』	
純宗 2年(1909) 4月 29日	大韓醫院長, 日本軍醫 등을 演慶堂 접견·오찬	『日省錄』	왕의 私的 處所이자 避難處
純宗 2年(1909) 5月 26日	법무부차관 등 법무부 간부와 각 재판소 판검사와 전옥 등을 演慶堂에서 만나고 연회	『日省錄』	
純宗 4年(1911) 4月 17日	왕이 왕비와 演慶堂에 왕립하여 음식 대접	『純宗實錄附錄』	
純宗 5年(1912) 4月 16日	왕 내외가 꽃박람회 가 열리는 후원에 갔다가 동석한 중척, 귀족, 고등관들에게 演慶堂에서 茶菓 대접	『純宗實錄附錄』	왕의 私的 處所이자 避難處
純宗 10年(1917) 11月 10日	大造殿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演慶堂으로 피신	『純宗實錄附錄』	

III. 演慶堂의 建築年代 推論

1. 1828년 改建

1) 건축배경

純祖는 11세에 즉위하여 3년 동안의 수렴청정기를 거쳐 親政을 하게 되자, 1810년 무렵부터 왕권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각종 講·應製·製述 등을 시행하고, 실무 관인들을 직접 만나 현실의 폐단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군사력과 궁궐경비 강화 등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료들의 부정적인 비판과 권력을 장악한 김조순 일가와 같은 세도가들에게 권력을 압도당하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순조는 1827년부터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게 된다.⁵⁶

효명세자 역시 父王 순조처럼 왕권을 바로잡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려 하였다. 그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단행한 정책 중에서 왕실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성대하게 치른 進爵禮(進饌禮)이다.⁵⁷ 그런데 행사가 치러진 1827·1828·1829년의 3년 동안은 잦은 홍수와 연이은 흉년으로 국가 재정이 매우 궁핍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존호례와 생신 진작례를 강행한 것은 의례적인 행사였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순조 초기에는 여러 대비전의 육순과 칠순을 맞이했음에도 흉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진연을 허락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⁵⁸ 따라서 이

⁵⁶ 대리청정도 실시하라는 순조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김조순, 이상황, 심상규, 정원용 등이 이미 그 내용을 논의하여, 대리청정에 찬성하기로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 상(청년사, 1990), pp. 94-102, 주66 재인용. 한편,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은 순조 21년(1821) 10월 孝禮殿에서 개최된 朔祭를 순조 대신 행한(攝行) 후부터 정후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순조 23년(1823) 겨울에 본격화되었다. 『純祖實錄』 卷26, 순조 23년 5월 25일, 卷31 순조 30년 7월 15일條.

⁵⁷ 父王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한 進爵儀禮(1827년)와, 어머니인 純元王后의 四旬을 기념·축하하기 위한 진작의례(1828년), 純祖의 四旬과 재위 3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축하하기 위하여 거행된 진작의례(1829년) 등이다. 『純祖實錄』 卷31, 순조 30년 7월 15일條, 墓誌文.

⁵⁸ 1804년(순조 4)은 대왕대비(貞純王后)가 六旬, 惠慶宮이 七旬, 王大妃(孝懿王后)가 50세가 되는 경사스런 해였으나 흉년이라는 이유로 진연을 행하지 않았다. 또 같은 이유로 1813년(순조 13)의 효의왕후 還甲진연과 1814년(순조 14)의 혜경궁 八旬진연도 허락하지 않았다. 『純祖實錄』 卷6 순조 4년 1월 10일, 2월 28일; 『純祖實錄』 卷15 순조 12년 1월 1일條.

행사의 이면에는 추락된 왕권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힘든 상황만큼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3년 중에서 1828년에는 2차례나 진작연이 거행되었다. 즉 순원왕후의 四旬축하 진작연이 2월에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또 다시 진작연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6월 15일이 순조의 생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월에는 자경전에서, 6월에는 연경당에서 행한 것이 주목된다. 또 2월의 진작연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예행연습을 연경당에서 거행한 것을 보면 연경당이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짐작하게 된다.

한편 『승정원일기』나 『일성록』의 순조 28년 3월 21일 기사에는 효명세자가 신하들과 연경당에서 율대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편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演慶堂內排設'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서온돌이 존재하므로⁶⁰ 침전이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궁중의례는 정전·편전·침전 등에서 행해졌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大妃殿과 東宮殿에서도 거행되었다고 한다.⁶¹ 따라서 세자의 편전이자 침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1828년 당시의 연경당은 동궁전으로 쓰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28년 무렵은 왕이 궁궐 내에 사대부집을 지어 놓고 소일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 의욕적으로 강구되던 때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경당이 건축되어 왕실 권위를 드러내는 진작연이 거행되었다는 것은 당시 연경당이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東闕圖>의 글씨 기입 방식

1828년의 모습을 담고 있는 <동궐도>에는 거의 모든 건물에 이름이 쓰여 있다. 연경당에도 역시 검은 먹빛의 글씨가 쓰여 있는데, 바탕에 흰 칠이 가해져 있다². 이는 무언가를 썼다가 지운 흔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궐도>의 연경당 모습은 연경당이 건축되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진장각이라 여겨지기도 한다.⁶²

⁵⁹ 이종목, 「익종문집 해제」, 『翼宗文集』 1, 한국학자료총서 1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pp.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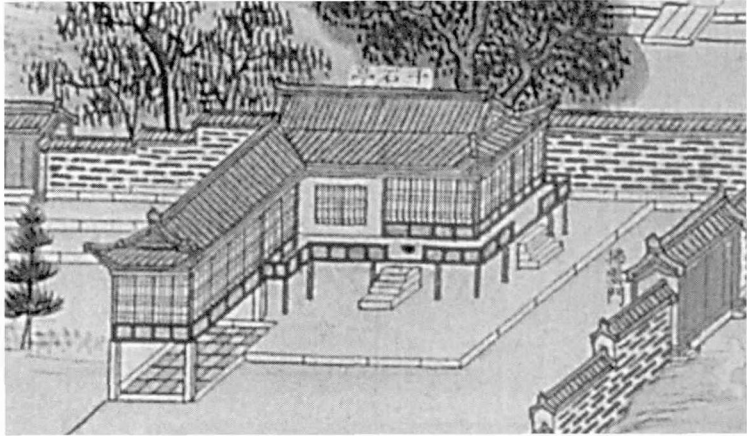
⁶⁰ 주16 참조.

⁶¹ 조재모,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3), pp.281-284.

⁶² 주남철 교수는 이 흰 칠이 연경당의 부속전각에 없는 것에 주목하여 <동궐도>에 그려진 연경당 건물은 원래 진장각으로 그려졌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연경당이 들어서자 옛 명칭을 흰 칠로 가리고 그 위에 '연경당'이라고 기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남철, 『연경당』(일지사, 2003), pp.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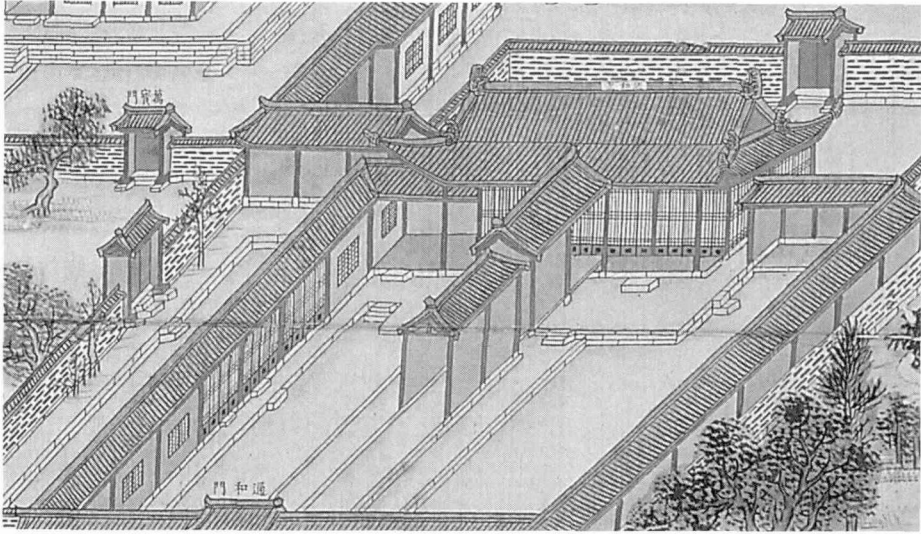


도7 <東闕圖>의 誠正閣·喜雨樓·報春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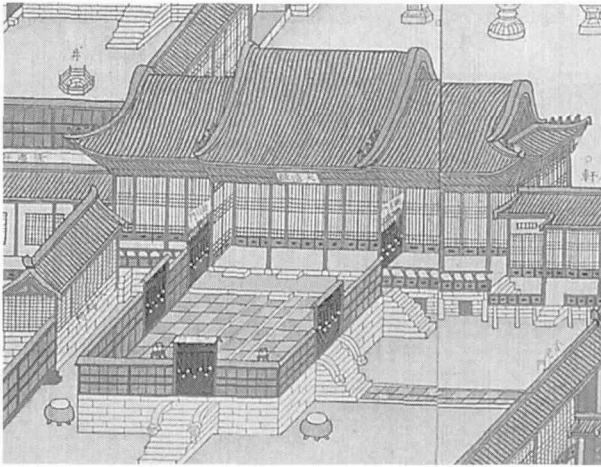


도8 <東闕圖>의 千石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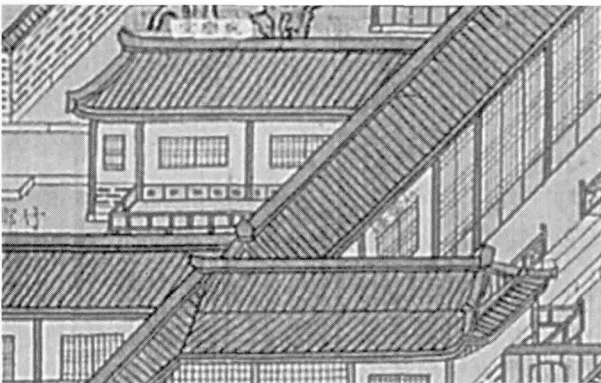
그러나 <동궐도>에 쓰여 있는 전각명을 자세히 보면 바탕에 흰 칠을 가한 위에 검은 먹빛의 글씨가 쓰여 있는 경우는, 연경당을 제외하고도 6곳이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誠正閣 도7·千石亭 도8·通和殿 도9·大造殿의 延春門과 延秋門 도10·婉戀堂 도11 등의 글씨도 흰 바탕칠 위에 쓰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들의 공통점은 건물 이름이 쓰여야 할 위치에 담이나, 창틀·박석·나무 등이 그려져 있어서 검은 먹빛의



도 9 <東闕圖>의 通和殿



도 10 <東闕圖>의 延春門·延秋門



도 11 <東闕圖>의 婉戀堂

글씨를 써 넣으면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글씨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고안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배경효과로서 혹은 액자효과로서 흰색으로 바탕칠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동궐도>에서의 이러한 글씨 표기 방식은 편액에 쓰인 건물 이름의 표현에도 나타나 있다.⁶³ 따라서 <동궐도>의 연경당은 건물 명칭이 수정된 진장각이 아닌, 1828년 당시 개건된 연경당 모습이 분명하다.

2. 1846년 新建

1) 新建공사의 내용

앞장의 문헌자료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에서 연경당이 헌종 12년(1846) 2월 무렵에 새로 지어졌다는 기록을 볼 수 있었다. 즉 “이번 연경당 신건공사에 거의 만 냥이 들었는데 겨우 삼천 냥만 지불했다.”⁶⁴고 되어 있어 이 당시의 연경당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앞장에서 사료12를 살필 때 언급한 바 있다.

이 당시의 공사내용은 기록으로 전해지는 바가 없어 짐작하기 어렵지만, 공사비용이 명기되어 있어 그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공사비가 만 냥이 들었는데 삼천 냥만 지불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공사였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냥이라는 당시의 화폐가치를 추정하여 현대 공사비와 비교해 보면 공사내역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만 냥의 화폐가치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정확히 환산하는 것은 간단치 않지만⁶⁵ 19세기의 화폐가치를 쌀값으로 추정하는 연구를 통해 대략적인 가치는 추정해 볼 수 있다.

1846년 당시의 쌀 한 가마는 6-7량 정도였으므로 만 냥은 약 1,500섬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19세기 도량형은 현대 도량형의 약 6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⁶⁶ 따라서 약 1,500섬으로 추산되는 만 냥은 현대 도량형으로는 2/3인 약 1,000섬에 해당된다. 2004년 4월 현재

⁶³ 도7의 오른쪽에 있는 전각에 걸린 喜雨樓와 報春亭 편액이나 도10의 대조전 편액 등, <동궐도>에 보이는 대부분의 편액은 흰 바탕에 글씨를 쓴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⁶⁴ “今番演慶堂新建所入合僞 万兩 上下僅僞三千餘兩.” 『備邊司謄錄』 223冊: 『承政院日記』 2447冊: 『日省錄』 154冊 憲宗 12년 2월 18일條.

⁶⁵ 한국은행의 화폐연구실에 문의한 결과 우리나라의 화폐가치 자료는 1910년 이후 자료만 있으며,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시기의 자료나 통계는 없다고 한다.

⁶⁶ 이러한 추정방법은 경제사를 연구하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李憲禎 교수님께서 敎示해 주셨다.

백미 80kg 1섬 가격은 약 23만 원 정도이므로 약 1,000섬의 가격은 약 2억 3천만 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액수는 그 추정 과정에서 활용한 기준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확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당시의 국민총생산을 안다면 국민총생산(GNP) 대비 공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현대의 공사비와 비교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화폐가치 연구는 아직 이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사비 만 냥 중에서 삼천 냥만 간신히 주었다는 내용은 1846년 당시로서는 공사비를 일시에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공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만 냥이 투입되어 연경당이 새로 지어졌다면 그 모습은 전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때, 현존 연경당과 같은 상류주택으로 건축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2) 건축배경

연경당이 새로 지어지는 1846년 무렵은 궁궐 내에 많은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때였다.⁶⁷ 이 시기에는 궁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었다. 즉 18세기 말 이후 건축공장의 노동형태가 부역노동의 성격을 벗어나 노임제로 정착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고급기술은 확산되어 갔기 때문이다.⁶⁸ 특히 주택분야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⁶⁹ 민간에서의 이러한 경향이 궁궐 내로 유입되어 연경당을 새로운 형식과 양식의 주택으로 건축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연경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이듬해 지어지는 낙선재도¹²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한다. 왜냐하면 두 건물 모두 사대부의 집처럼 단청을 하지 않고, 주택 건축에 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이 가해져 있기 때문이다.⁷⁰

⁶⁷ 1845년 5월 이후에 창경궁의 영춘헌·집복헌 수리공사가 있었고(『備邊司謄錄』 223冊 憲宗 12년 2월 17일; 『承政院日記』 2447冊 憲宗 12년 2월 18일; 『日省錄』 154冊 憲宗 12년 2월 18일), 1847년과 1848년에 낙선재와 수강재·석복헌이 차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노진하, 「낙선재 일곽의 조영배경과 건축특성」,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pp.39-40). 이러한 건축공사들로 인해 마침내는 “대내에 새로이 집을 짓거나 중수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상소가 올려지기도 했다. 『憲宗實錄』 卷2 憲宗 13년 9월 丙申; 『日省錄』 憲宗 13년 9월 20일.

⁶⁸ 김동욱, 『한국건축공장사연구』(기문당, 1993), p.223.

⁶⁹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기문당, 1997), pp.281-286.

⁷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경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도 12 낙선재, 1847년

3. 1870년대 補修

1865년 4월에 연경당과 의두합 수리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시상할 것을 명했다는 기록(사료14)은 효명세자와 고종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고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효명세자가 건축한 건물을 수리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익종으로 추존된 효명세자의 왕통을 계승한 고종이 자신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후의 건축공사로는 1898년의 도배만 기록되어 있어 더 이상의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선향재 도13 때문이다.

현존 연경당에 소속된 건물 중에서 서재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선향재는 측벽에 벽돌이 사용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집 내부에 서재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19세기 후반 상류주택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⁷¹

⁷¹ 서울 자하문에 있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별서에 서재용도로 석과정이 세워진 것이 그 한 예이다. 이 건물 역시 측벽이 벽돌로 마감되어 있다.



도 13 선향재, 1870년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에서 벽돌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의 華城공사이며 이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² 이 당시의 벽돌은 구조재나 장식재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방화벽으로서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 들어 빈번하게 발생했던 궁궐 内の 화재⁷³로 많은 피해를 입자 궁궐건축의 방화벽 시설은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특히 그림이나 글씨를 보관하는 건물에서 방화벽 설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을 것이며 이것은 어쩌면 전대부터 내려온 전통이 아니었을까 한다. 왜냐하면 <동궐도>에서 文華閣과 漱芳齋 현판이 걸린 건물도¹⁵을 살펴보면, 정면 6칸 맞배 지붕집인데 좌우 벽이 벽돌로 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1820년대에 벽돌로 지은 건물이 궁궐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현존하지 않고, 기록도 전해지지 않아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건축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건물 주위로 天地長男之宮과 세자 書筵장소로 알려진 重熙堂이 위치한 것으로 보서는 세자와 관련된 곳임을 짐작할 수 있고, 문화각의 앞쪽으로 2층 건물인 圖書樓가 표현되어 있어서 서재 또는 서고로

⁷² 박성형, 「한국건축의 甃瓦(벽돌)사용과 그에 따른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8).

⁷³ 1824년 창덕궁 경복전 소실(『宮闕志』“景福殿在瑤源殿北……二十四年(1824)甲申災……”), 1830년 창경궁 환경전, 함인정, 공목합, 경춘전, 승문당, 영춘헌 등 소실(『純祖實錄』卷48, 純祖 31년 8월 丙戌).



도 14 집옥재, 1873-1876년

쓰였던 건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책과 관련된 건물에 방화벽으로서 벽돌로 마감하는 것은 당시의 전통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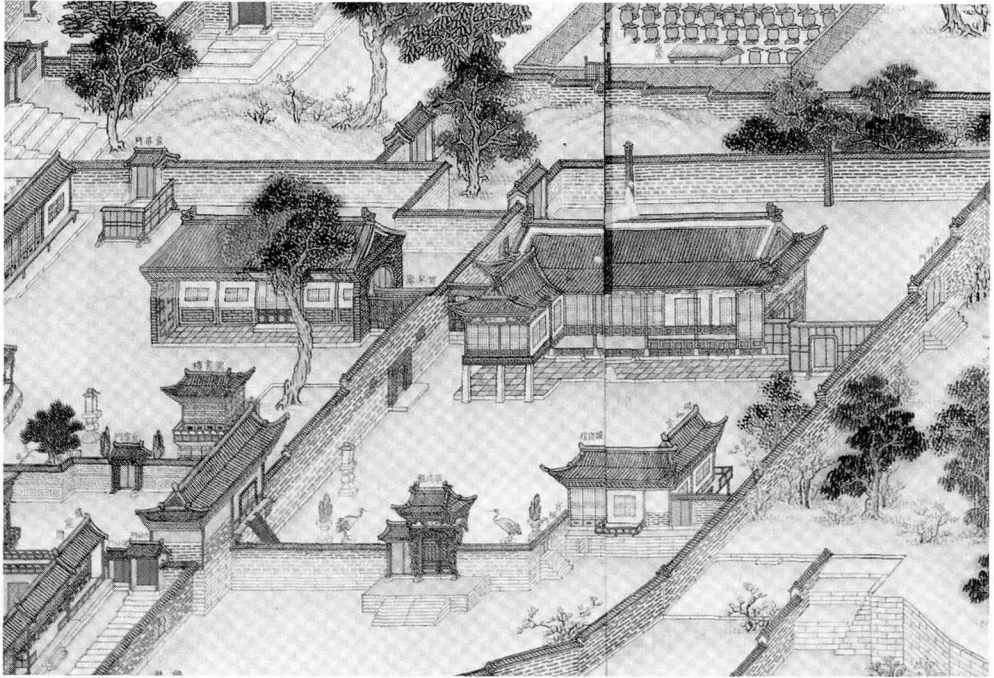
선향재처럼 궁궐에 입지하면서 측면에 벽돌이 사용된 건물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창덕궁 대조전 일곽의 건물들과 경복궁의 集玉齋^{도14}를 예로 들 수 있다. 대조전 일곽의 건물들은 1917년 창덕궁 내전의 화재 후 다시 지어진 것이므로 선향재와 비교할 수 있는 건물은 집옥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두 건물 모두 내부의 양 측벽에 벽장⁷⁴이 있으며 측벽과 지붕이 맞닿는 면은 치장벽돌로 내쌓기를 하여 마치 목조건축에서 지붕의 처마 내밀기를 형상화한 듯하다.

선향재의 건축연대는 연경당과 마찬가지로 1828년으로 추정되고 있다.⁷⁵ 그러나 경복궁에서 고종의 서재로 이용되었던 집옥재와의 대략적인 비교만으로도 연경당의 건축시기는 훨씬 후대로 내려볼 수 있게 된다.

먼저 집옥재에 사용된 벽돌을 조사해 보면 총 4종류의 벽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한 종류가 선향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⁷⁶ 집옥재의 조성시

⁷⁴ 이는 목조로 건축하고서 벽돌을 쌓아 생긴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⁷⁵ 박성형, 앞의 논문, p.324.



도 15 〈東園圖〉의 文華閣, 漱芳齋(향 좌측부터)

기는 고종 10년(1873)~고종 13년(1876)의 건청궁 공사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⁷⁷ 따라서 짐옥재와 동일한 벽돌이 사용된 선향재의 건축연대는 짐옥재의 건축연대와 크게 차이날 것으

⁷⁶ 짐옥재에 쓰인 벽돌이 4종류나 되는 것은 여러 차례에 걸친 보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4종류의 벽돌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集玉齋수리공사보고서』(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2), pp.11-13).

① 1898년 완공된 명동성당 건립 당시에 사용된 벽돌로, 그 후 각국 공사관·교회건물에 주로 사용되었고, 해방 이후까지 사용되었으나 근래에는 이런 크기의 벽돌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109×227×60mm).

② 바닥에 쓰이는 전돌로 기단이나 건물 내부 바닥에 사용되는 흑색 鋪方甃이다(235×245×35mm).

③ 궁궐 내의 굴뚝이나 담장에 장식재로 사용되는 흑회색 벽돌로, 벽 처마의 내민 부분이나 창덕궁 대조전의 뒷담장 등에 사용된 예가 남아 있다(210×310×75mm).

④ 치수가 정확하고 색상이 일정하여 질감이 매우 좋은 주황색 벽돌로, 경복궁 자경전 주위 꽃담이나 창덕궁 구선원전 앞의 꽃담, 연경당 선향재 축벽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크기, 색상, 질감을 보이는 벽돌이다(115×230×55mm).

⁷⁷ 『集玉齋수리공사보고서』(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2), pp.11-13. 『高宗實錄』高宗 10년 5월 10일條에 강진 규가 “건청궁이 너무 화려하다.”고 하여 상소한 내용이 있다.

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1876년 11월의 경복궁 대화재로, 고종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겨 10년 동안 머물다가 1886년에서야 경복궁으로 환궁하였으므로 창덕궁에서 생활하는 동안 집옥재와 같은 서재용도의 건물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⁷⁸ 따라서 집옥재가 먼저 건축된 후 선향재가 지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향재의 건축 시기는 1870년대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연경당은 1828년에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건물로 지어져, 여러 번 용도가 바뀌다가 건축계에 새바람이 일던 1846년에 신경향을 반영하여 새롭게 지어졌고, 1865년에 고종의 왕통을 과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리가 행해졌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향재의 기능과 외형·재료 등을 집옥재와 간략히 대조해 그 건축시기를 1870년대 후반으로 추정해 보았다. 따라서 현존 연경당의 기본구성은 1846년 새롭게 지어지면서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나, 선향재는 이보다 뒤에 건축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현존 연경당은 18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IV. 맺음말

창덕궁 후원에 있는 99칸 사대부집인 현존 연경당이 <동궐도>에 있는 연경당과 전혀 다른 집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에서 출발하여 연경당의 건축연대를 추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동궐도>상의 연경당과 1828년 제작된 「진작의궤부편」의 <연경당도>는 동일한데, 이들이 현존 연경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연경당이 건축된 시대 배경을 고찰하여 1828년에는 궁궐 안에 사대부집보다는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더 절실했음을 살필 수 있었고, 효명세자의 墓誌銘을 통해 연경당이 그러한 건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한편, 문헌자료 고찰을 통해서도 연경당의 연혁을 구성하여 역사적 추이에 따른 연경당의 용도변화와 그 배경을 추론할 수 있었다.

현존 연경당의 건축연대에 대해서는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을 통해 현종 12년(1846) 2월 무렵에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향재는 경

⁷⁸ 1876년 11월의 대화재로 고종은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10년 뒤인 1886년에 환궁하여 1889년 內殿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건청궁에 거처하였다. 집옥재는 이때부터 1896년 이관파천 때까지 서재 겸 외국사신 접견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궁 집옥재와 간략히 비교하여 1870년대 후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따라서 현존 연경당은 1828년이 아닌 1846년에 건축되어, 1870년 무렵에야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단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연경당의 건축 배경에는 효명세자의 왕권강화 정책, 19세기 후반 건축의 신조류, 고종의 익종 추념사업을 통한 왕권강화 의지 등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앞서 가설로 제시한 견해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계속 보완하여 '연경당의 건축적 특성과 연혁을 종합적으로 연구' 하는 논고를 통해 정리해 나가겠다.

* 주제어(key words) __ 演慶堂(Yeongyeongdang), 東闕圖(Donggueldo), 東闕圖形(Donggueldohyeong), 進爵儀軌附編(Jinjakuigwe Bupyeon), 演慶堂圖(Yeongyeongdangdo), 善香齋(Seonhyangjae), 集玉齋(Jipokae)

▣ 투고일 2004년 7월 21일 | 심사일 2004년 7월 31일 | 심사완료일 2004년 8월 10일 ▣

국문초록

演慶堂은 창덕궁의 후원에 있는 士大夫家이다. 99칸 집이라고도 불리는 연경당은 규모가 큰 면에서도 주목되지만 건축 자체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돋보이는 건물이다. 건축적 특성은 밖에서 보면 안채와 사랑채가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내부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부엌이 집의 북쪽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집 내부의 別堂인 善香齋와 濃繡亭은 19세기 후반의 상류주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演慶堂은 현재 1828년(純祖 28) 당시 代理聽政을 하던 孝明世子가 건축을 순하여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828년에 제작된 「進爵儀軌附編」의 圖說 〈演慶堂圖〉를 살펴보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꺾내 전각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모습은 1827년에서 183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東闕圖〉에 그려진 연경당과 일치한다. 따라서 현재 연경당은 1828년 건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연경당의 沿革은 조사된 바가 없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1820년대부터 1910년대 까지 宮闕과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여 연경당의 건축연혁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연경당이 1846년(憲宗 12) 무렵에 새롭게 건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의 건축공사로는 高宗年間の 修理·塗槽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현재 연경당 모습은 1846년 초에 처음 갖춰지고 高宗 연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연경당 내에 있는 善香齋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선향재는 경복궁의 集玉齋처럼 書齋이며 동일한 벽돌이 쓰였고 쌓는 방식과 내부구조에 있어서도 두 건물은 공통점이 보이고 있어,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고종이 경복궁 집옥재를 1873년에서 1876년 사이에 건축한 후, 1876년의 경복궁의 화재로 창덕궁으로 移御하여 10년 동안 거주하였기에, 이 기간에 창덕궁의 후원에 집옥재와 같은 건물로서, 선향재를 건축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1828년 당시의 연경당과 현존 연경당은 전혀 다르므로, 현재 모습처럼 주택으로 지어진 이유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단, 孝明世子가 翼宗으로 追尊된 후 翼宗과 憲宗, 翼宗과 高宗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憲宗이 연경당을 新建해야만 하는 타당성과, 고종이 연경당을 수리하여 머무를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할 수 있었다. 즉, 憲宗이 자신의 生父가 왕으로 등극하지도 못하고 승하하자 왕으로 추존하여 父親과 관련된 건물에 肖像畫와 筆跡을 奉安하여 보살피는 일은 타당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고종은 翼宗의 대

를 이어 登極하였으므로 가능하면 王統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익종을 추념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東闕圖〉와 「進爵儀軌附編」의 圖說 〈演慶堂圖〉를 통해 1828년 당시 건축된 연경당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 모습이 현존하는 연경당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備邊司謄錄』·『日省錄』과 『承政院日記』의 憲宗 12년(1846) 2월 18일조의 기록을 통해 연경당이 1846년(憲宗 12) 初에 新建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宮闕誌〉와 〈東闕圖形〉을 현존 연경당 배치도와 비교하여, 연경당이 新建된 이후 여러 차례 改建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넷째, 연경당의 善香齋는 경복궁의 集玉齋와의 비교를 통해, 연경당이 新建될 당시에는 건축되지 않았다가, 1870년대에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서 현존 연경당이 1828년의 건축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士大夫家로 건축된 이유와 공사비 관련 문제, 선향재와 집옥재의 연관성 등은 가설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A Study on the Year of the Construction of Yeongyeongdang

Shon Shin-young

Yeongyeongdang (演慶堂), located in the back garden of Changdeokkung, is a building designed in the style of a literati gentleman's private residence. Yeongyeongdang, which is also called the 99kan (間) house, is eye-catching not only for its big size but also for its beauty. Although, the inner quarter and the outer quarter seem separate buildings from the outside, they are, in fact, connected to each other; and the kitchen is a separate building placed in the northern area. Seonhyangjae (善香齋) and Nongsujeong (濃繡亭)—pavilions attached to the main complex—are in the late 19th-century style.

The construction of Yeongyeongdang is known to have been ordered by Crown Prince Hyomyeong (孝明世子, then ruling as regent) in 1828 (28th regnal year of King Sunjong). However, the buildings shown in the *Yeongyeongdangdo* (〈演慶堂圖〉) of *Jinjakuigwe Bupyeon* (『進爵儀軌附編』) published in 1828, look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they are today. Rather, they are closer to those depicted in *Donggwoldo* (〈東闕圖〉) presumed to have been painted between 1827 and 1830. We can conclude from this that the present Yeongyeongdang is not the one built in 1828.

The chronology of Yeongyeongdang has not been examined until now. The architectural chronology of Yeongyeongdang could be arranged by investigating the historical records from 1820 to 1910. Thus, unlike what has so far been understoo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sent buildings of Yeongyeongdang were built in 1846 (12th Year of King Heonjong). Some repair works and papering (of the walls and ceiling of the rooms) were carried out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高宗). It can be presumed from this that Yeongyeongdang took its present shape in 1846 and the construction work was completed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This can also be confirmed by examining Sunhyangje, one of the pavilions within Yeonkyeongdang complex. Sunhyangje is a library like Jipokje (集玉齋) of Gyeongbokgung and the two buildings were built with the same type of bricks. The method of piling up bricks and the interior structure of the two buildings are also identical, thus, exhibiting the fact that they have close relationship each another. King Gojong built Jipokje in Gyeongbokgung between 1873 and 1876, but due to the fire of Gyeongbokgung in 1876, he moved to Changdeokgung and stayed there for 10 years. Most likely during that period, he ordered the construction of Sunhyangje in the same style as Jipokje.

The fact that the Yeongyeongdang built in 1828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its current shape begs a question of why its plan changed significantly. However, no historical document that testifies to the reason has been discovered so far. Perhaps a clue may b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 Ikjong (翼宗) and King Heonjong (憲宗) and that between King Ikjong and King Gojong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t is highly probable that King Heonjong, who saw his father die before the accession to the throne, posthumously conferred him the title, Ikjong, and installed his portrait and calligraphy in the building which was closely related to his father, while King Gojong cherished the memory of King Ikjong in order to prove orthodoxy of his royal descendants lin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summed in the following several points.

First, the original shape of Yeongyeongdang as was built in 1828 could be confirmed through *Dongguedo*, which reveals it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Second, the present architectural plan and style of Yeongyeongdang took shape in 1846 when it was rebuilt, which is evidenced by the records from the 12th year of King Heonjong (Feb. 18th, 1846) in *Bibyeonsadeungrok* (『備邊司謄錄』), *Ilseongrok* (『日省錄』) and *Seungjungwonilgi* (『承政院日記』).

Third, re-formation of Yeongyeongdang was carried out several times as can be

demonstrated by comparing the plan of the present Yeongyeongdang with the plan represented in *Gungguelji* (『宮闕誌』) and *Donggueldohyeong* (〈東闕圖形〉).

Forth, Sunhyangje of Yeongyeongdang was built in the 1870s, as shown in comparison with Jipokjae of Gyeongbokgung.